i-KIET 산업경제이슈

제214호 2026-14

발행일 2026년 4월 21일 | **발행인** 권남훈 | **편집인** 이두희 | **발행처** 산업연구원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심순형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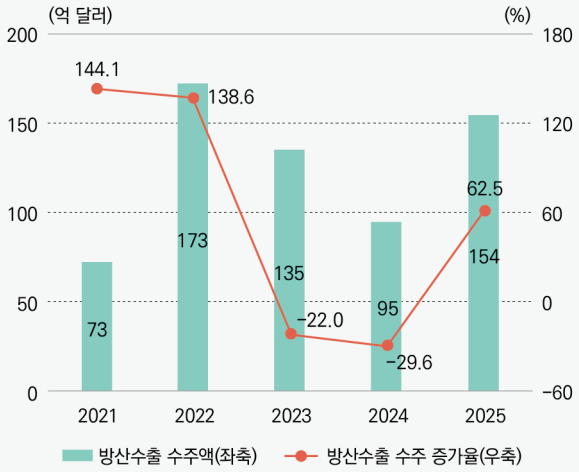
- **2025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
  - 대형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수출시장 및 품목이 다변화
  - 방산수출 호황에 힘입어 주요 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
- **방산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그러나 경제·안보 융합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미흡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방산수출 품목과 가장 유사한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활용**
  - 예를 들어, 기동·화력은 기타 운송장비 산업, 군용기는 항공기 산업, 함정은 선박 산업 등으로 매칭
- **2025년 방산수출 수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조 7,000억 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으로 추정**
  - 방산수출의 파급효과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 그러나 최근 구매국의 요구로 현지생산이 확대되며 파급효과가 반감될 우려
  - 따라서 수출고도화와 시장다변화,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

핵심 주제어: 방산수출, 방위산업, 파급효과

2025년 방산수출 수주 현황

- 2025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증가
  - 폴란드 3차 계약(64억 6,000만 달러) 등 대형 계약의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 및 품목이 다변화
    * (2024) 14개국, 21개 사업 → (2025) 17개국, 28개 사업

〈그림 1〉 최근 5년 방산수출 수주액(2021~2025)



자료: 방위사업청.

〈표 1〉 권역별·무기체계별 수주금액(2025)

단위: 억 달러

권역	무기체계	수출금액
유럽	기동	69.6
	화력	47.7
중동	화력	5.4
아시아	화력	5.5
	함정	6.2
	항공	8.4
미주	기동	0.12
	함정	0.85
	화력	0.05
기타	-	10.6
합계	-	154.4

자료: 방위사업청.

- 주요 방산업체 4개사*의 수주잔고 합계는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5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 주요 기업들의 2025년 3분기 누적실적이 이미 작년 실적을 초과
    * 예시) H사 매출: 11조 2,000억 원(2024) → 18조 7,000억 원(2025년 3분기)
      영업이익: 1조 7,000억 원(2024) → 2조 3,000억 원(2025년 3분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절차

- 방산수출 호황이 지속되면서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방위산업은 기계·전자·소재·ICT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창출하며, 완제품 수출 이후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되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역시 높은 편
  - 그러나 경제·안보 융합 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미비
  - 본 연구는 2025년 방산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중 한 종류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거래관계를 기록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최종수요의 증가로 인한 생산·부가가치·고용의 유발효과를 도출하는 방법

- 각 산업의 총산출액(X)은 중간투입(A^dX)과 최종수요(Y)로 구성

$$A^dX + Y = X \quad (A^d: \text{국내산업 투입계수}, \ X: \text{총산출액}, \ Y: \text{최종수요}) \tag{1}$$

- A^d 행렬은 투입계수 행렬로서, 각 산업의 총산출에 대한 중간투입의 비율을 의미
- 식 (1)을 X에 대해 정리하면,

$$X = (I - A^d)^{-1}Y \tag{2}$$

- $(I - A^d)^{-1}$은 생산유발계수로서, 이 행렬을 기초로 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를 도출
  * 생산유발효과: $\triangle X = (I - A^d)^{-1}\triangle Y$, 부가가치유발효과: $\Delta V = A^v(I - A^d)^{-1}\Delta Y$, 고용유발효과: $\Delta L = A^l(I - A^d)^{-1}\Delta Y$

방산수출 품목과 유사 민수산업 간 매칭

-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에는 방위산업 관련 항목이 부재
  - 따라서 수출 무기체계와 가장 유사한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
    * 예) 기동·화력-기타 운송장비, 군용기-항공기, 함정-선박
  - 방산수출 품목을 민수산업과 매칭한 결과, 기타 운송장비(49.5%), 기타 화학제품(26.2%), 기타 제조업제품(6.9%) 순으로 높은 비중

〈표 2〉 2025년 방산수출의 각 품목과 민수산업의 매칭 결과

단위: 억 원

수출품목	해당 민수산업	수출액	수출품목	해당 민수산업	수출액
군용기	항공기	10,961	유도무기·발사체계	기타 금속가공 제품	11,898
함정	선박	9,302	기동·화력	기타 운송장비	110,330
기동 부품	자동차 부품	3,894	기타	기타 제조업제품	15,288
MRO	산업용 장비 수리	2,423	탄약·유도탄	기타 화학제품	58,410
설계	기타 과학·전문서비스	202	합계	-	222,708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수출 수주액 154억 4,000만 달러 기준(2025년 평균환율(1,422.22원/달러) 적용).

산업연관분석의 추정 결과

- 2025년 방산수출 수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조 7,000억 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으로 추정

〈표 3〉 2025년 방산수출 수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단위: 억 원, 명

항목	수출액(억 원)	생산유발효과(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고용유발효과(명)
합계	222,708	464,342	137,188	100,622
유발계수	-	2.085(2.066)	0.616(0.615)	4.518(4.49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1) 괄호 안은 제조업의 유발계수 평균.
2) 명/10억 원.

- 2025년 방산수출이 창출하는 생산·부가가치액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1.8%이나, 방산수출의 고용 비중은 약 3.3%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편
  * 2024년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통계 기준
- 또한, 방위산업은 연구직의 비중이 25%이며, 정규직 비중도 92.0%(제조업: 82.7%)로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구조

- **기동·화력 등 주력 수출품목의 높은 국산화율과 강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방위산업의 실제 산업연관효과는 이 분석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
  -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대형 장치·조립산업으로서, 여타 제조업 대비 높은 산업연관효과와 기술파급효과를 수반
  - 방산수출의 유발계수를 살펴보면, 방산수출 1단위가 늘 때, 생산은 2.085, 부가가치는 0.616이 증가하며, 방산수출 10억 원당 약 4.5명의 고용을 창출
    * 현재 유발계수는 제조업의 평균과 비교하면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나, 이는 기존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 단, 자료의 한계상 실제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사용한 점, 그리고 민수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중계산 문제 때문에 제조업과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
  -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단, 최근 구매국이 현지생산·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우려**
  -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파급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 따라서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

저자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 연구위원 | simsh@kiet.re.kr | 044-287-3214

KIET 산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 FAX 044-287-3333 | 홈페이지 www.kiet.re.kr

이 글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